불교신문 종 합 2010년(불기2554년) 2월 17일 수요일 제2599호

"조계사·해인사·관음사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라"

중앙종회 총무·호법분과 연석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와 호법분과위원회는 지난 10일 한 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에서 제27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사·해인사 ·관음사의 현안에 대해 총무원이 엄 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조사하 고, 만일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 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는 데 의견

총무분과위원회와 호법분과위원 회는 총무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3월8일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183 회 중앙종회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

이날 회의에서는 △김포 용화사 주지 폭행 사건과 관련된 사항 △조 계사 국정원 출입금지 및 신도회 성

명서 발표와 관련된 사항 △해인사 고불암 경매 및 토지 강제수용, 가야 산 골프장 건설 관련된 사항 △관음 사 토지 처분 관련된 사항 등 '종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재무부 와 호법부의 보고를 받은 후 토의하 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총무분과위원 장 무자스님과 호법분과위원장 법광 스님을 비롯해 진화·혜림·일문·범해 ·보인·원경·일법·계호(이상 총무분 과위원회)·재연·종호·현조·수현(이 상 호법분과위원회) 스님 등 중앙종 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또한 재무 부장 상운스님과 호법부장 덕문스님 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관음사 토지 매각 '불가피'

지난 17년간 35억 '빚더미' 떠안게 돼 주지 원종스님, 9일 기자회견서 밝혀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 지 원종스님)는 지난 9일 기자회견 을 열고 "관음사 토지 일부를 제값 에 매각하여 우선 법정 공탁금을 마 련하고 법정대응을 적극적으로 하 자는 결의를 했다"며 "총무원 승인 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 의실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 음사 주지 원종스님은 지난해 12월 26일 관음사 사부대중이 참석한 연 석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

이날 관음사가 배포한 문건에 따 르면 관음사 전 주지 스님이 17년간 재임기간 중 35억원 이상의 빚더미 를 관음사에 떠안겼다. 문건은 "전 주지 스님이 12억여원의 금융부채를 남긴데다, 측근들까지 나서 대여금 형식으로 21억여원을 관음사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기타 채무

이 종도들에게 바르게 알려져서 더 고 밝혔다. 큰 충격과 삼보정재의 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헌 종법 및 전통사찰보존법 등을 보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

스님은 "지난 2007년 8월 관음사 사태로 한국불교와 조계종 종도들에 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자존심에 상 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며 "관음사 사부대중은 제주불교의 중심도량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한라선원을 개원하고 제주불교문화 대학을 통해 매년 300명 이상을 졸업 시키고 매주 정기 기도회와 염불봉 사단 결성 등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고

원종스님은 "한때 같은 조계종 승 려로서 관음사에 재임했던 사람들이 관음사의 삼보정재를 공중분해하려 고 했다는 점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 가 2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 할 따름이다"며 "그래도 정의와 진 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원종스님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없이 눈물로써 내린 연석회의 결정 관음사 도량을 정상화시킬 것"이라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종교인부터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각 종교지도자, 고건 위원장 초청오찬서 '공동노력' 공감대

종교지도자들이 사회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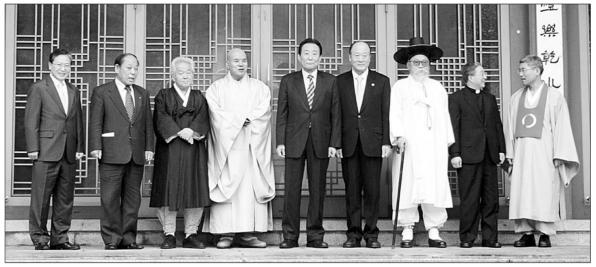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희 중 천주교 주교 등 7명의 종교지도자 들은 지난 10일 정오 고건 사회통합 위원장 초청으로 마련된 오찬에 참 석해 사회통합에 공동 노력하기로

서울 시내 삼청각 일화당에서 열 린 오늘 오찬에서 고건 사회통합위 원장은 "다른 나라는 종교간 갈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 서 "종교지도자들이 사회통합에 노 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사회통합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고견(高見)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인부터 사회통 합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 이하고 "사회통합위원회가 우리 사 회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 용산참사와 관 련 고건 위원장은 "재개발 이익 배분 문제는 과거의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 혔고, 종교지도자들도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통합위원회 김동완 지원단장 은 오찬 회동에 앞서 종교지도자들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초청으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회동에 앞서 삼청각 일회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완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고건 위원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에게 위원회 활동 방향과 업무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완 지원단 장은 "국민들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정책 다음에 '사회통합'을 꼽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6·25 60주 년, 4·19 50주년, 5·18 30주년 등 주 요 역사적 사건들의 기념시점으로 갈등 표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계·시민사회·학 계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면

서 종교지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초청으로 마 련된 이날 오찬 회동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 회 공동대표회장, 김희중 천주교 주 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 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2009년 8 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

성균관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한양

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참석했

에서 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힌 후, 같 은해 10월19일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가시화 됐다. 이어 12월23일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정식으로 발족했다. 1차 회의는 올해 1월18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고건 사회통 합위원장은 지난 1월5일 신임 인사차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 을 나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용주사 주지후보 선출 3월2일 산중총회 개최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정호스 님)는 오는 3월2일 오후1시 경내 효 행교육관에서 신임 주지후보자 선출 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2교구 재적 스님, 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 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인 비구스 님, 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비 구니 스님,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 이 경과하고 주민등록상 2년 이상 용 주사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 등이다. 본사 주지 입후보자는 승랍 25년 이 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대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거 주승 신고 및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용주사 종 무소에 마련된 2교구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진행한다.

한편 전강대종사문도회(의장 정무 스님)는 오는 3월2일 낮12시 용주사 효행교육관에서 '정기총회 및 문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우리 사회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 달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한국URI 고문 추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한국 종교연합선도기구(URI-Korea) 고 문으로 추대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은 지난 9일 박남수 한국종교연합선 도기구 상임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 에서 '고문 추대패'를 전달 받았다.

박남수 상임대표는 "최근 총무원 장 스님의 북한 방문이 남북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 면서 "한국종교연합의 고문으로 우 리 사회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 달라" 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 은 "종교화합과 교류를 위해 한국종 교연합이 노력해 달라"면서 "종단 차 원에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 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배석했다.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는 지난 1999년 결성된 기구로 8대 종교가 참 여하고 있다. 종단에서는 그동안 고 산스님, 정대스님, 법장스님 등 역대 총무원장이 고문으로 추대됐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문제 해결…아픈 마음 놓으라" "스님들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

총무원장 자승스님, 용산참사 유가족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했다.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 관으로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초청한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후 참사현장에서 유가족을 뵙고 도 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통 령을 만나서도 해가 가기 전에 해결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다. 아픈 마음 은 내려놓으라"고 격려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스님들께서 많 으로 보상에 합의했다. 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스님

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다"면서 인사를 했다.

이날 배석한 화계사 주지 수경스 님과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도 "김남 훈 경사나 돌아가신 철거민 모두 희 생자"라며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해 11월 용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다"면서 산참사현장으로 유가족들을 위로 방 문하고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으며, 서울시와 유가족은 지난 연말 극적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불교신문〉은 "종지와 종책의 선양을 위한 종단 언론시책과 홍 보업무 및 포교의 향상을 목적으

로 한다"는 '기관지령'에 근거해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결의와 총무원장 스님 결재를 득한 전국 본말사 주지 인사 내용을 소개합니 다(교구본사 순). 지면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다음호에 이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2월9일 종무회의 결과)



석구스님

제천 자은사







현욱스님 울진 월궁사



금산 극락사





경산 환성사

성남 석가사



선덕스님

응관스님 성주 심원사 청송 관음사



법주사 승기대학(강원)학인모집

불기2554(2010)년 법주사 강원 신입 및 편입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모집기간 3월 1일~3월 31일까지 신입/편입 3월 27일~4월 10일까지 신입생

모집대상) 치문반(입학생) 00명

사집반(편입생) 00명 사교반(편입생) 00명

〔**제출서류** 〕 ①입방워서(본사소정양식) ··········1부 ②추천서1부 ③승려증(수계증명서.행자교육필증) · · · · · · · 1부 (5)사진 3x4(오조착용) · · · · · · · · · · · · · · · · 3 갓

⑥편입생은 학적부. 전학년 수료증 제출

(**준비물**) 대가사(비구). 만의(사미), 장삼, 발우 (전 형) 수시 서류심사 및 입방

문의처 강 원☎ 043)543-6783

종무소 ☎ 043)543-3615

法住寺僧伽大學(講院) 講主 香山 撤雲